



5.18 부활제 5.18 광주민주항쟁 33주년 기념행사인 '5.18 부활제'가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빗속에서도 수백여명의 시민이 참여,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법안 발의만 하면 뭐하나

왜곡·'쑈 추정금'·'임을 위한...' 관련 10여건 모두 상임위 계류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왜곡 등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나 관련 상임위에 장기 계류 중인 사례가 많아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심의 활동과 통과 노력이 절실하다.

◇5.18 왜곡 관련=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7일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를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제의 국권침탈, 친일반민족행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17일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재판 중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박관현법'인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논의도 안 된 상태다.

◇'전두환' 추정금 관련=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정금(1673억원)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진 자 이를 막는 법안이 쏟아졌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6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추징금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발의된 '전두환법'도 많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에게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김동철)과 '부패재산의 몰수'(진보정의당 김제남)은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발의돼 2월에 법사위에 상정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지난 21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5.18 바로 세우기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이는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반적이다. 야당도 말만 앞세운채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역사의식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정치권을 지켜봐야만 5.18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흑산도 전역 면세지역 지정 추진

전남도 中 관광객 겨냥 쇼핑관광지 개발 계획

전남도가 중국 관광객을 겨냥, 흑산도 섬 전체를 말레이시아 '랑카위'처럼 면세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흑산도 비행장 건설이 추진돼 지금보다 교통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신안 일대 섬을 쇼핑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27일 "흑산도 전 지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용역에는 신안군, 인천시 등

진군, 경북 울릉군 등이 참여해 섬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합동으로 섬 면세지역 지정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며, 전남은 흑산도가 대상지역이다.

수도권에 비해 면세점 등 쇼핑 시설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흑산도 섬 면세지역 지정이 중국 관광객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인승 이하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흑산도 경비행장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

도는 분석하고 있다. 경비행장이 건설되면 흑산도~서울 간 소요 시간이 1시간 가량으로 단축된다.

또 흑산도 면세지역 지정은 전남도가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아일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 아일랜드는 신안 자은, 안좌, 노대 일대에 고급 숙박 시설과 카지노, 면세점, 휴양지, 레저, 스파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편 국내 섬 면세지역은 아직 없으며,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전용면세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우치공원 위탁관리 금호 특혜 의혹

광주시 운영자 공모 신규업체 입찰 자격 제한

광주시가 민선 5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우치공원 '명품화 사업'을 3년만에 포기하고 위탁관리 하기로 한 가운데 신규 운영자 공모에서 기존 운영자인 ㈜금호리조트(이하 금호)에 유리한 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자산공매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우치공원 유원시설 위탁 관리를 위한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관리위탁 대상은 광주시 소유인 토지 14만1000㎡와 건물 49동, 놀이기구 19종 등이며, 예정가인 연 4억 53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응찰한 자가 3년간 수탁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입찰 참가자격과 조건이 현 운영자인 금호측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입찰자격을 유회시설 6종 이상을 운영(관리)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으로 제한했는데, 이같은 조건을 갖춘 업체는 광주에서 금

호를 제외하면 단 1개 업체이며, 전국을 통틀어도 40개 업체에 불과하다.

시는 또 우치공원에 금호 소유인 유원시설 8종(총 29억여원)과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규 수탁자는 금호와 재협의 토목 해 '이중 협의'에 따른 부담으로 입찰참여를 꺼리게 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 때문에 입찰참여를 포기했다는 A씨는 "과도한 자격제한에다 일부 시설물은 현 수탁자인 금호와 알아서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입찰에 누가 참여하겠느냐"며 "결국 현 운영자(금호)가 다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우치공원 특혜설은 '명품화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수차례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2011년 6월 금호로부터 민간위탁기간(20년)이 끝난 우치공원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500억~1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명품화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 특혜설에 휘말렸다.

당시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사업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

기하며 제안서 제출을 포기했고, 금호만 유일하게 제안서를 냈으나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운영계약이 만료된 금호와 계약공고도 없이 5차례에 걸쳐 사실상 월값(6개월 임대료 1억 7700만원)에 위탁계약을 연장해 특혜의혹을 자초했다. 금호는 2년 6개월의 추가 연장으로 175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입찰자격에 운영실적을 포함한 것은 최소한의 운영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일부 시설물의 위탁을 제외한 것은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3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www.pinkcampaign.com

일시	2013년 6월 2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을 입력하세요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포츠 양말

주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주관 | AMORE PACIFIC

후원 | 보건복지부 ·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 HERA · 케토름 · 르까프

